

이제 비로소 우리 글로 읽게 된 근대 시정인의 자유분방한 예술혼

《조희룡 전집》 완역한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조선 말엽 시서화 삼절로 알려진 우봉 조희룡의 《조희룡 전집》이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의 5년간에 걸친 번역작업 끝에 나왔다. 조희룡은 조선조 사대부의 고답적 미의식을 탈피하고 근대 시정인의 미의식을 표현한 예술인이었다. 이번 전집 발간을 계기로 '소품단문'의 산문형식이 새롭게 재평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서린 바다, 적막한 물가, 황량한 산과 고목 사이에 달팽이집 같이 작은 움막 속에서 움츠러 떨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한묵(翰墨)의 능사(能事)에 손을 대 온갖 돌과 한 떨기 난초를 때때로 그려냈다. 되는 대로 붓을 놀리고, 먹을 튀겨 빗물처럼 흘뿌려서 돌은 흐트러진 구름처럼, 난초는 젖혀진 풀처럼 그리니 자못 기이한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애오라지 스스로 좋아할 따름이다.”(〈화구암난묵〉)

이조 말엽, 절해고도의 유배지에서 울분의 세월을 보낸 한 고독한 예술인의 내면세계가 새겨진 글이다. 그는 누구였던가. 우봉 조희룡(又峰 趙熙龍:1789~1866). 당대에 시서화(詩書畫) 삼절(三絶)로 알려진 중인층 예술인.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의 광휘에 가려졌던 인물. 현존하는 1백여점의 그림으로 미술수집가들을 매혹시키고 있는 화가.

5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

풍문과 전설로 전해오던 조희룡의 문학·예술세계가 1백여년이 한참 지나 유려한 문예미학으로 되살아났다. 실시학사(實是學舍) 고전문학연구회(회장 이우성)가 역주한 《조희룡 전집(전6권)》(한길사)이 그것이다. 16명의 고전문학 연구자들이 1994년 봄부터 번역에 착수, 5년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94년 당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희룡의 유작(遺作)들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던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고전문학연구회에서 유재건의 《이항견문록》(민음사) 번역을 마친 뒤라 조희룡 전집을 번역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제 전집으로 묶여 나온 것을 알면 조희룡이 지하에서나마 기뻐할 것입니다.”

이우성 회장(74)의 설명이다. 당시 실시학사에서 조희룡 작품을 번역한다는 것이 학계에 알려지면서 개별적으로 수장(收藏)하고



《조희룡 전집》을 역주한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원들.
가운데가 이우성 회장

있던 자료의 출처를 알려주거나 직접 기증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희룡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았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번역을 계기로 〈우해약암고〉와 〈우동척독〉을 최초로 발굴, 소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번역작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모두 16명으로 이회장의 성균관대 제자들이 주축을 이뤘다. 송재소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김시업 성균관대 국어국문과 교수, 권진호·김명균 안동대 강사, 김진균·나종면·윤세순·이성호·정환국·하정승 성균관대 강사, 신익철·이철희·한영규 광운대 강사, 이지양 한국종합예술학교 강사, 이현우 세명대 강사 등이 그 면면이다.

“원래 출판은 목적으로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문고전에 담긴 정신을 철저히 해독하자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현재 방대한 고전적을 완전하게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손에 꼽을 정도지요. 우리 선조들의 정신유산이 해독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실시학사의 강독회는 우리 고전의 명맥을 이어가는 작은 노력입니다”라고 이회장은 말을 잇는다.

'소품산문'에 뛰어난 문예이론가

번역과정은 철저한 실증정신에 바탕을 뒀다.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실시학사에 모여 발표자가 강독하면, 다른 연구원들이 번역원고를 검토하면서 토의하고 이회장이 최종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독이 시작되면 두세시간은 금세 지나가버렸다. 조희룡의 작품세계가 매혹적이었던 까닭이다. 서로 오류를 발견하고 바로잡아 가면서 그의 정신세계가 오롯이 되살아났다.

“조희룡은 19세기 예술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대 여향의 예술인 가운데 조희룡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예술관을 발연한 인물은 드물었습니다. 그의 미학적 논의도 꽤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소품산문(小品散文)’에 뛰어났습니다. 짧은 글 속에 대상과 감정을 간결하면서도 예리하게 포착해냈지요.”

신익철 연구원이 평가하는 조희룡의 면모다. 그는 조희룡의 예술세계가 조선조 사대부의 고답적 미의식을 탈피하고 근대 시정인의 미의식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중인출신이라는 철저한 신분적 자각, 예술가로서의 주제적 각성, 유희의 정신과 수예(手藝)의 강조 등이 조희룡 예술관의 특징이다.

이번 전집에는 조희룡의 산문·시·서간문·전기물 등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특히 산문은 수필, 화제(畫題), 단평(短評) 등 수기류(手記類)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리한 관찰과 탈속한 사고, 기발한 상상력과 참신한 표현법이 담겨 있다.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행하여 스스로를 해친다면 사자가 달을 잡으려고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져 스스로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석우망년록》)라는 글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한원근 연구원은 “지금까지 고전 문학사에서 ‘소품산문’이 중요하게 거론되지 못해왔습니다. 이번 전집을 계기로 그것의 문학적 가치를 재조명해야 할 것”이라며 “조희룡의 자유분방하면서 유미주의적인 예술적 기질은 조선 봉건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경지”라고 평가했다.

조희룡은 흔히 추사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19세기 이른바 ‘완당 바람’이 일세를 풍미하던 때, 조희룡은 핵심축근으로서 그의 영향을 누구보다 많이 받았다. 하지만 조희룡은 추사라는 거장의 예술적 자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자 한 인물이었다. 이회장은 그들의 신분과 기질에서 예술적 차이점을

찾는다.

“추사는 명문출신 학자로서 가문과 조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인출신인 조희룡은 과거라는 격식과 양반사대부의 규범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유분방한 예술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조희룡은 추사를 닮았습니다. 추사가 조희룡을 미워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호랑이가 고양이를 미워한 격’이었다고 할까요.”

국학의 세계화에 전력 기울여

경기도 일산에 자리잡고 있는 실시학사는 ‘서린기 문자향’이 가득한 국학연구의 산실이다. 90년 이회장이 성균관대에서 정년퇴임한 후 후학 양성과 연구공간을 위해 마련했다. ‘실시’는 ‘실사구시’의 준말로서, 학문이 삶의 현장에서 멀어져가는 현실을 비판하고 ‘실제 사정에 입각해 연구해 옳은 것을 추구한다’는 실학정신을 이어받았다.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전 국역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회장은 줄곧 국학의 현대화·세계화를 외쳐왔다. 우리 민족 대다수가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전을 우리말과 글로 옮겨 세계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다. 우리 선조들의 정신유산을 현대화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은 단순히 자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배후까지 투시해야 그 글에 담긴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전의 세계에 이르는 길은 지난합니다. 앞으로 근력이 닿는 한 후학들과 함께 고전의 번역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모두들 첨단인 문명과 시정(市井)의 소란으로 몰려가는 요즘, 실시학사 연구원들은 묵향 가득한 문자의 세계에서 고전의 정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조희룡의 글이 떠올랐다.

“손이 가는 대로 칠하고 그어 먹기운이 생동하여 가슴 속의 불평한 기운을 표출해내니, 문득 소슬하고 높은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오직 이 한 가지 일이 일체의 고액(苦厄)을 극복해 가는 법인 것이다.”

— 박천홍 기자

